

제14강 마르타와 마리아

1. 마르타와 마리아(루카 10장 38절~42절)

루카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 본보기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시했다.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마리아의 본보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의 인격적 일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뜻한다.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루카 복음사가의 특수자료에서 나왔다. 요한 복음(11,1~4; 12,1~8)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의 라자로에 대한 언급이 루카 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 이야기의 문학양식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처신을 칭찬하시는 선언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도입(10,38~39)

둘째, 마리아에 대한 마르타의 불평(10,40)

셋째,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10,41~42)

1.2. 도입(10,38~39)

38절 : 그들의 집을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3km)쯤 떨어진 베다니아로 밝힌 요한 복음(11,18)과는 달리, 루카 복음사가는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위의 두 여자가 요한복음(11,1.3.19; 12,1~3)에 나오는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동일인물들이고 베다니아가 그들의 유일한 고향인데도, 루카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음을 강조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장소보다 사건 자체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마르타 혼자서 예수님을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한 것은 그가 집주인이고 마리아의 언니임을 암시한다. 또 마르타의 남편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가 미혼이었거나 과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 문화권과는 달리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티나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손님으로 집에 모시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

39절 : 마르타가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대의 관례대로 아직

식탁에 비스듬히 눕지 않으신 것 같다.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의 자세를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자세는 그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성적이었음을 뜻한다. 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신 것은 당대 유대인 선생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여자가 새로운 위치를 받고 직접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3. 마리아에 대한 마르타의 불평(10,40)

예수님을 위한 시중에 너무나 바쁜 마르타는 비록 그분을 위해 좋은 일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소홀히 한 셈이다. 마르타는 예수께서 당신 말씀을 듣느라 자기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그냥 두시는 것을 불평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께 시중들기 위해 혼이 빠질 정도로 부산하게 설치고 있는 마르타가 보기에, 마리아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무심하신 분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타는 그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며 신경질을 부린 것이다. 둘째, 마르타는 자기 혼자 예수께 시중들도록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마리아에게 발끈한 것이다.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타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했다.

1.4. 좋은 몫을 택한 마리아(10,41~42)

41절 : 예수께서는 마르타가 손님으로 오신 당신과의 대화라는 유일하게 필요한 일을 잊고 음식 장만이라는 외적인 일을 걱정하며 안달한다고 여기셨다. 마르타는 성대한 음식대접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했지만,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결국 음식준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르타의 걱정과 염려는 하느님의 일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난 세속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 말씀보다 세속적 걱정에 집착하면 말씀을 들어도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에 질식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루카 8,14)

42절 : 예수께서는 마르타를 돕도록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인 복음을 그에게서 박탈하지 않으신다. 마르타는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긴 마리아가 실상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가장 좋은 몫을 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본받아야 한다. ‘몫’이라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음식의 분량을 가리키는 데 사용

된 말인데, 상징적으로 주 하느님이 의인의 뭍이 되신다는 뜻이다. 마리아는 이러한 의인의 자세를 취한 충실한 제자로서 의인의 뭍을 받은 것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 종말에 축복을 누린 것이다.

제15강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19,28~40)과 성전정화(19,45~46)

1.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19,28~40)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전통을 편집해서 제시했다. 루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열광적이었다는 마르코 복음의 진술(마르 11,9~10)을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호하는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했다는 진술로 바꾸었다(루카 19,38~39). 한편 루카 복음 19,39~40의 진술은 마르코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서술(루카 19,28~40)의 문학양식은 선언문(19,28~38)과 환호이며(19,39~4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19,28)

둘째, 제자들이 망아지를 끌고 오다(19,29~34)

(가) 망아지를 끌고 오게 하시다(19,29~31)

(나) 제자들의 순명(19,32~34)

셋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19,35~38)

(가) 제자들의 준비활동(19,35~36)

(나) 군중의 찬양(19,37~38)

넷째, 바리사이들의 비판과 예수님의 응답(19,39~40)

1.2. 도입(19,28)

예수께서는 갈릴래아에서 예리고를 거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예루살렘을 향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실 것을 예상하게 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천상의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통로이다.

1.3.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다(19,29~34)

(가)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다(19,29~31)

29절 :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동쪽 키드론 계곡 건너편에 위치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4킬로미터 정도 펼쳐진 산이다. 그 산은 봉우리가 셋인데, 그 중 제일 높은 봉우리의 정상(해발870미터)은 북쪽의 ‘스코푸스 산’(Ras el-Mesharif로 불림)이고 중앙 봉우리의 정상(해발 800미터)은 전통적으로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남쪽 정상은 ‘실완’(Silwan) 마을에서 솟아올

랐고, ‘타락의 산’, 혹은 ‘죄의 원인이 되는 산’(Mount of Offence)으로 불렸다.

벧파게와 베다니아는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벧파게(아람말로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들의 집’을 뜻함)가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서에 따라 베다니아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십자군 시대 이후 벧파게는 베다니아 북서쪽에 위치하여 올리브 산보다 더 높은 곳이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이렇게 벧파게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베다니아(히브리말로 ‘아나니아의 집’ 혹은 ‘하나니아의 집’을 뜻하는 것 같음)는 올리브 산 동쪽 경사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7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이곳에 살던 라자로(요한 11,17~53)의 이름을 따라 ‘엘 아자리에’로 불렸다.

30절 : ‘어린 나귀’는 구약성경에서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짐승으로 통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의식적인 뜻에서 순수한 상태를 상징한다(민수 19,2; 신명 21,3).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임금의 신분에 맞게 행차하시려 함을 강조한다.

31절 : 예수께서는 초인적 인식능력으로 이 어린 나귀가 어느 마을, 어디에 매여 있으며, 그 주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과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당신께 끌고 와야 하는지를 다 아시고 그렇게 분부하셨다.

(나) 제자들의 순명(19,32~34)

루카 복음사가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몰고 가도록 허락하라고 부탁했다는 마르코 복음의 진술(마르 11,6)을 생략해 이 징발이 주인들의 허락이나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입각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당할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을 묘사했다.

1.4.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19,35~38)

(가) 제자들의 준비활동(19,35-36)

35절 :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몸소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셨다고 한 마르코 복음(11,7)의 진술을 제자들이 그분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했다고 바꾸어 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36절 :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을 임금으로 극진히 받들어 모시며 자기 소유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자기의 겹옷을 길에 계속 깔았던 것이다.

(나) 군중의 찬양(19,37~38)

37절 : 제자들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위업들, 요컨대 기적의 치유 활동(루카 13,10~17; 14,1~6; 17,11~19...)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했다. 또 그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예수님의 구원활동을 올리브 산, 즉 예루살렘 근처에서 찬양

하기 시작한 것은 성도에서 실현될 세상 종말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온 제자들의 무리가 큰 소리로 하느님의 위업을 찬양한 내용은 시편 118의 26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19,38ㄴ)

루카 복음사가는 위의 시편 118의 26절과 마르코 복음의 본문(11,9)에 없는 ‘임금님’을 덧붙여(요한 12,13)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임금으로 환영했음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왕권은 다윗의 아들로써(루카 18,38~39) 조상 다윗의 왕좌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으리라는 약속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은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영원한 왕권에 참여하신 데 기인한다. 예수께서 세상 종말의 메시아 임금으로서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을 일깨우셨으므로 온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맞이하며 환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알아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리브 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우실 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19,41~44)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루카 19,38ㄷ)

평화는 하느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며 메시아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하느님은 메시아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행차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전인류와 화해하시며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1.5. 바리사이들의 비판과 예수님의 응답 (19,39~40)

39절 : ‘바리사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는 그분이 왕권을 받으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40절 :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예루살렘의 돌들이라도 당신의 신비를 알고 증언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살아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한 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돌들은 그것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즉,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새로운 결정적 계시에 둔감한지를 강조한다. 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진술은 아무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칭송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2. 성전정화(19,45~46)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성전정화에 대한 진술의 병행구는 마르코 복음(11,11.15~19)인데 루카 복음사가는 그것을 꽤 많이 편집해서 제시했다. 요컨대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진술(마르 11,11ㄱ)과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어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열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아로 물러가셨다는 마르코 복음의 기록(11,11ㄴ)을 생략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이튿날(화요일)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마르코 복음(11,12)의 기록과는 달리, 루카 복음사가는 마태오 복음(21,10~13)처럼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가셨다고 서술했다.(루카 19,45) 또 그는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기록(마르11,12~14)을 생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께서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다는 마르코 복음의 진술(11,15)과 백성이 성전 구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진술(11,16), 성전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사56,7)이 되어야 한다는 기록(마르 11,17)을 생략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품위에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하고 성전을 잘못 사용한 당대 성전 당국자들에 대한 그분의 비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성전정화에 대한 진술의 문학양식은 예언적 선언문이다.

2.2.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19,45~46)

45절 :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들의 뜰’(475m × 300m)로 들어가셨다. 이곳에는 제물용 흙 없는 짐승들(요한 2,14; 루카 2,24: 소, 양, 염소, 비둘기)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를 지불할 때 이용하는 환전상들이 있었다. 성전세는 반 세겔¹⁾로 성인이 된 남자 유다인들에게 부과되었다.

예수님의 성전정화는 성지에서의 탐욕과 상거래 경쟁 같은 부도덕한 금전거래를 금지하신 것으로, 나쁜 목적을 위해 남용된 성전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과 함께 하느님과 마몬 중 마몬을 택했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다.(루카 16,13) 그들은 기도의 집이라는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46절 : 이 구절은 이사야 예언서 56장 7절과 예레미아 예언서 7장 11절을 혼합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사야 예언서에 따르면 기원전 538년 이후 성전이 재건된 다음, 하느님은 당신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셨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민족이 당

1)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근동의 무게단위이며, 훗날에는 화폐단위로 통용되었다. 세겔의 가치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세겔은 대략 11,4g로 추정된다.

신을 섬기는 집을 이상적인 성전으로 여기셨다(이사 56,6~7; 2,2~4).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세상 종말에 만드실 이상적인 성전이 당신의 오심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셨다(마르 11,17). 그러나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이라는 말을 생략해 모든 민족들을 다불러 모은 성전의 국제적 특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강도들의 소굴’(루카 19,46)이라는 말은 예레미아 예언자가 기원전 6세기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면서도 그분께 회심하지 않고 성전을 신뢰하는 이들을 공격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부도덕하게 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파괴를 예언할 때 사용했다(예레 7,3~20; 특히 7,11) 예수께서는 당대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만나 뵙는 장소인 성전에서 부당한 상행위를 한 것을 옛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또 당대 성전 당국자들이 성전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강도짓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느님을 욕되게 한다고 비난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당신께 맡기신 복음선포의 사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전례 공동체, 즉 새로운 이스라엘 형성을 준비하신다. 이 공동체는 성전건물을 필요하지 않는다. 위엄을 띤 그들의 하느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처하시지 않기 때문이다.(사도 7,48)